



EIDF2020

명칭	제17회 EBS국제다큐영화제 인더스트리(EIDF2020 Industry)
기간	2020년 8월 17일(월) – 8월 21일(금)
장소	EBS디지털통합사옥
규모	5개 프로그램 총 41편 선정
시상식	2020년 8월 21일(금) 18:00
사이트	www.eidf.co.kr

영화제 관련 자료와 이미지는 웹하드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www.webhard.co.kr (ID: eidf2020 / PW: eidf123!)

*제17회 EBS국제다큐영화제에 대한 문의사항은 EIDF사무국(02-526-2173)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IDF2020 인더스트리 프로그램 소개

피치 프로그램

HI - Docs Pitch

크리에이티브 장편 다큐멘터리를 지원하는 피치 프로그램으로, 2021년 EIDF에서 상영 및 방영 가능한 제작 단계 50~70% 미만의 한국 프로젝트(K-Project)와 한국 제작자와 협업하여 한국과 아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국제 공동제작 다큐멘터리(A-Project)를 대상으로 한다. 현대홈쇼핑의 후원으로 사전 피치 워크숍과 피치 본 행사, 산업 관계자와의 미팅 기회가 제공되며, 총 1억 5천만 원 규모의 제작지원금을 7편의 우수 프로젝트에 지원한다.

후원: 현대홈쇼핑 | 주관/주최: EBS국제다큐영화제

KOCCA-EIDF Pitch

한국 감독과 프로듀서가 진행하는 기획 개발, 제작 단계 30% 미만의 장편 다큐멘터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5편의 우수 프로젝트에 총 5천만 원 규모의 기획개발비를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에서 지원한다.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 주관/주최: EBS국제다큐영화제, 한국콘텐츠진흥원

EBS Prime Pitch

국내외에서 경쟁력 있는 4편의 우수한 다큐멘터리에 각 2천만 원 상당의 제작지원금을 지원하는 EBS 커미셔닝 프로젝트로, 선정된 작품은 2021년 EBS 다큐 프라임에 방영된다.

주최: EBS/EBS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아카데미 프로그램

글로벌 피칭 아카데미(GPA)

해외 피칭 경험이 없는 신진 제작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기획 중인 프로젝트를 멘토와 함께 개발하고 국제적인 다큐멘터리 프로듀싱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EIDF 기간에 열리는 공개 피칭을 통해 선발된 5팀에는 해외 교육 기회가, 우수 3팀에게는 편당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 상당의 제작지원금을 지원한다.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해외 교육은 그에 준하는 국내 심화 교육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주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관: EBS국제다큐영화제, 한국전파진흥협회

퍼스트컷 완성 (The First Cut)

러프 컷 단계의 국내 프로젝트 5팀을 선정하여 5인의 해외 편집자와 4일간의 1:1 온라인 편집 컨설팅을 진행한다. 편집 진행상황은 EIDF 기간에 열리는 공개 발표인 '퍼스트컷 완성 발표 - ON & OFF TALK'를 통해 공유될 예정이다.

기획: 보다미디어그룹, SJM문화재단

공동주최: SJM문화재단, 전주국제영화제, EBS국제다큐영화제

EIDF2020 인더스트리 프로그램 소개

Producers Meet Funds

Producers Meet Funds는 한국 다큐멘터리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펀드 주체와 다큐멘터리 프로듀서 간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하려는 취지의 국내 다큐멘터리 제작지원 기관과 프로듀서들의 라운드 테이블 미팅이다.

각 라운드 테이블은 2개의 기관, 5인의 프로듀서로 구성되어 20분씩 미팅을 하며, 총 5개의 테이블에서 순차적으로 돌아가며 진행하며, 지원 기관 및 EIDF 인더스트리 참여 프로듀서가 라운드 테이블 형태로 모여 지원제도에 대한 맞춤형 질의 응답시간을 가진다.

라운드 테이블 미팅이 끝난 후, 가장 친화적이면서 매력적인 지원 기관에게 'PMF 인기상'을 수여한다.

EIDF2020 인더스트리 파트너

PREMIERE SPONSORS



고양시
Goyang City

현 대 홈 쇼 핑

AWARDS SPONSOR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한국전파진흥협회
Korea Radio Promotion Association



Korea
Communications
Agency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한국콘텐츠진흥원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PARTNERS



에스제이엠문화재단

Jeonju
Intl. Film
Festival

EIDF2020 인더스트리 심사위원 소개(피치)

〈KOCCA-EIDF Pitch〉



김영우 Kim Youngwoo

현 DMZ국제다큐영화제 프로그래머 / 한국

미국 럿거스대학교에서 영상예술과 TV를 전공했다. 2007년부터 국내 다양한 영화제에서 활동했으며, 2014년부터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 영화담당 프로그래머로 참여하며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시네마펀드 (ACF)와 아시아프로젝트마켓(APM) 선정위원을 역임했다. 한국독립영화협회 정회원이며, 2014년부터 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을 맡고 있다. 2019년부터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프로그래머를 맡고 있으며, 2020년 암스테르담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IDFA) 프로그램 어드바이저로 활동하고 있다.



문성경 Moon Sung

현 전주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 / 한국

2004년 전주국제영화제 프로그램팀을 시작으로 부산국제영화제, KT&G상상마당시네마, 전주프로젝트마켓, 인천다큐멘터리포트 등 국제 산업행사 및 포럼에서 활동했다. 2013년부터 영화진흥위원회의 중남미 주재원을 역임했고, 2019년부터 전주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로 재직 중이다.



형건 Gunny Hyung

현 EIDF 사무국장 / 한국

미국 Wayne State University에서 미디어커뮤니케이션, Post BA와 동 대학원 영화 미디어(MA)를 전공하였으며 EIDF 초대 프로그래머와 사무국장(2004~2008)을 역임했다. 시카고다큐영화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영화제, 상하이 TV 페스티벌, Sunnyside of the DOC, 광주국제다큐페스티벌에서 심사위원 및 패널을 역임했으며, EBS 다큐프라임-한국PD 대상(실험정신상)을 수상하였다.

<KOCCA-EIDF Pitch>



브리짓 오셰어 Brigid O'Shea

DOK Leipzig 인더스트리 총괄 책임자 / 독일

브리짓 오셰어는 호주 출신으로 멜버른과 베를린에서 미술 학위를 마친 후 베를린 국제 영화제의 네트워킹 플랫폼인 베를린 탈렌트를 비롯하여 공동제작 마켓에서 10년 넘게 일해왔으며, 지난 5년간은 DOK Leipzig Co-Production 미팅 등 DOK 인더스트리 행사를 주관해왔다. 오셰어는 프라하의 다큐멘터리 캠퍼스 등 다큐멘터리 영화 교육 기관에서 다큐멘터리 교육 과정을 이끌어 왔으며, 독일 뿐 아니라 북미와 발칸반도에서도 신진 제작자를 대상으로 유럽의 공동 제작과 파이낸싱에 대한 워크숍을 하고 있다. 2015년부터 그녀는 DOK 인더스트리의 총괄 책임자를 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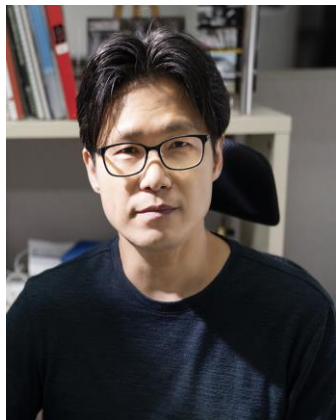
이마무라 켄이치 Kenichi Imamura

NHK 엔터프라이즈 글로벌 프로그램 총괄 프로듀서 / 일본

1983년 NHK에 입사하였으며 현재까지 다수의 뉴스 프로그램들과 다큐멘터리들을 제작해왔다. 2005년에서 2009년까지 NHK의 배급망인 MICO의 마케팅 디렉터로 활동하였으며, 이후 NHK의 인기 프로그램 월드 다큐멘터리의 커미셔닝 에디터를 역임하였다. 2012년 NHK 엔터프라이즈에 입사하여 새로운 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전 세계 다큐멘터리 영화제에 적극적으로 참석해오고 있다. 또한 2011년 Tokyo Docs의 설립 이래 어드바이저로 활동하고 있다.

EIDF2020 인더스트리 심사위원 소개(피치)

<H!-Docs Pitch>



이승준 Yi Seungjun

다큐멘터리 감독 / 한국

〈보이지 않는 전쟁 - 인도 비하르 리포트〉(1999)로 다큐멘터리 작업을 시작했다. 〈신의 아이들〉(2008, 전주국제영화제 NETPAC상), 〈달팽이의 별〉(2011, 암스테르담국제다큐영화제 IDFA 장편 부문 대상, EIDF 유니세프 특별상 및 관객상), 〈달에 부는 바람〉(2014, EIDF 유니세프 특별상), 〈크로싱 비온드〉(2018,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영화), 〈그림자꽃〉(2019, DMZ국제다큐영화제 최우수한국 다큐멘터리상) 등을 연출했다. 뉴욕다큐멘터리페스티벌 단편 부문 대상을 받은 〈부재의 기억〉(2018)은 2020년 제92회 아카데미 단편 다큐멘터리 부문 최종 후보에 올랐다.



백연아 Paik Yeonah

다큐멘터리 감독 / 한국

그녀가 제작한 장편 다큐멘터리 '소리아이'와 '미쓰마마'는 EIDF와 부산국제영화제를 비롯한 국내외 영화제에서 상영, 수상했으며, 극장 개봉을 통해, 전통예술인 판소리와 대물림 문화, 우리사회의 결혼과 가족제도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는 평을 받았다. 2015년부터 EBS와 함께 아시아, 유럽의 국가들과 국제공동제작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만들어 오고 있다. 재팬프라이즈, 프리쥬네스 국제어린이청소년방송제 등에서 수상한 'Baby on the way, season 1, 2'의 한국편을 연출하였으며, 2018년 인도, 싱가포르, 노르웨이와 공동 제작한 '미래학교' 삼부작을 연출, '한국방송대상 교육예술분야 작품상'을 수상하였다.



이미솔 Lee Misol

현 EBS PD / 한국

현 EBS 프로듀서이며, 과학의 영역에서 재미있는 이야깃거리를 찾는 다큐멘터리리스트다. 물리학을 전공하고, 영상대학원에서 석사를 했다. 다큐프라임 〈시험〉, 〈4차인간〉, 〈뇌로보는인간〉 등을 연출했다. 다큐프라임 〈시험〉으로 삼성언론상 어젠다상, 백상예술대상 작품상 등을 수상했고, 다큐프라임 〈4차 인간〉으로 재팬프라이즈 최우수작품상, 휴스턴 국제 영화제 은상 등을 수상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과학 다큐멘터리를 만들 예정이다.

EIDF2020 인더스트리 심사위원 소개(피치)

<H!-Docs Pitch>



장경수 Jang Kyungsoo

현 SBS PD / 한국

현 SBS 시사교양본부 부장급 PD인 그는, <그것이 알고 싶다>, <SBS 스페셜> 등을 연출했다. 뉴욕TV페스티벌 동상, 휴스턴국제필름 페스티벌 대상과 상하이TV페스티벌 금상, 한국방송대상 최우수작품상, 한국PD대상 최우수작품상 등을 수상했다.



형건 Gunny Hyung

현 EIDF 사무국장 / 한국

미국 Wayne State University에서 미디어커뮤니케이션, Post BA와 동 대학원 영화 미디어(MA)를 전공하였으며 EIDF 초대 프로그래머와 사무국장(2004~2008)을 역임했다. 시카고다큐영화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영화제, 상하이 TV 페스티벌, Sunnyside of the DOC, 광주우다큐페스티벌에서 심사위원 및 패널을 역임했으며, EBS 다크프라임-한국PD 대상(실험정신상)을 수상하였다.



아멜리아 합사리 Amelia Hapsari

인-독스 프로그램 디렉터 / 인도네시아

인-독스의 프로그램 디렉터인 아멜리아 합사리는 정부, 해외 산업 관계자, 민간 사회 운동가 등과 영화제 제작자 사이의 창구 역할을 주도하며 인도네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의 다크멘터리 생태계 구축과 성장에 힘써왔다. 인-독스 운영으로 다져온 추진력으로 인도네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창의적인 다크멘터리를 널리 알리고, 투자 유치를 돕는 한편, 그 영향력을 높이는 데 기여해왔다. 또한 그녀는 담대하게 꿈에 도전하라는 비전을 담아 출범된 '데어 투 드림 아시아(Dare to Dream Asia)'와 인도네시아 창조경제청과 공동 운영 중인 '독스바이더씨(Docs By The Sea)'의 공동 설립자이자, 인도네시아 '굿피치'의 주최자이기도 하다.

<H!-Docs Pitch>



이마무라 켄이치 Kenichi Imamura

NHK 엔터프라이즈 글로벌 프로그램 총괄 프로듀서 / 일본

1983년 NHK에 입사하였으며 현재까지 다수의 뉴스 프로그램들과 다큐멘터리들을 제작해왔다. 2005년에서 2009년까지 NHK의 배급망인 MICO의 마케팅 디렉터로 활동하였으며, 이후 NHK의 인기 프로그램 월드 다큐멘터리의 커미셔닝 에디터를 역임하였다. 2012년 NHK 엔터프라이즈에 입사하여 새로운 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전 세계 다큐멘터리 영화제에 적극적으로 참석해오고 있다. 또한 2011년 Tokyo Docs의 설립 이래 어드바이저로 활동하고 있다.



오브 리스호이 젠슨 Ove Rishøj Jensen

다큐멘터리 프로듀서, 컨설턴트 / 덴마크

오브(Ove)는 2003년부터 국제 다큐멘터리계에서 일하며 폭넓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프로듀서와 공동 프로듀서로서 제작을 할 뿐만 아니라 스크립트 작성, 프로젝트 개발, 인터내셔널 파이낸싱, 공동제작, 임팩트, 아웃리치, 배급과 관련된 워크숍을 운영하고 강의도 하고 있다. 2011년부터 스웨덴 제작사 'Auto Images'의 프로듀서이자 아웃리치 매니저로 일하고 있으며, 'Only the Devil Lives Without Hope'과 'Every Face Has a Name'의 프로듀싱을 하고 아웃리치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 오브는 2019년 다큐멘터리 교육 및 컨설팅 전문회사 Paradiddle Pictures를 설립하였으며, IDFA, Fresh Pitch, Dix in Vitro, Mediterranean Film Institute, Nordisk Panorama 등과 파트너십을 맺어 협업하고 있다.



루디 부티놀 Rudy Buttignol

Knowledge Network CEO&프로듀서 / 캐나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방송사 '놀리지 네트워크(Knowledge Network)'의 대표이자 CEO다. '놀리지 네트워크'는 상업 광고 없이 운영되는 공영방송사로서 지역적이며 국가적이고 글로벌한 예술 및 문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텔레비전, 스트리밍 어플리케이션과 웹 사이트에서 송출하고 있다. 루디는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열리는 다큐멘터리 캠퍼스 마스터스쿨의 튜터이자 모데레이터이며, 암스테르담의 IDFA, 로마의 MIA, 토론토의 Hot Docs, 라로셀의 Sunnyside, 도쿄와 청두의 Asian Side of the Doc and 서울의 Crossing Borders에서 다큐멘터리 피칭 포럼의 모데레이터를 역임하였다. 그는 핫독스의 독모굴 어워드를 포함하여 캐나다 아카데미 상을 9번 수상했으며, 2015년 놀리지 네트워크를 이끈 그의 리더십과 캐나다 다큐멘터리 제작의 공로로 기리며 훈장을 수여받았다.

EIDF2020 인더스트리 심사위원 소개(피치)

〈EBS Prime Pitch〉



김시준 Kim Sijun

현 EBS PD / 한국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다큐멘터리를 연출했으며, 현재 EBS 편성기획 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대표작으로 〈원더풀 사이언스〉, 다큐프라임 〈자연사 대기화-생명, 40억년 비밀〉, 〈한반도의 매머드〉, 〈빛의 물리학〉, 〈무엇이 학교를 바꾸는가〉 등이 있다. 대한민국과학문화상(2013),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우수작품상(2014), 한국PD연합회 241회 이달의 PD상(2020) 등을 수상했다.



김훈석 Kim Hoonseok

현 EBS PD / 한국

1997년부터 EBS에서 기획, 연출, 프로듀서로 일하고 있다. 〈시대의 초상〉, 〈배워서 남줄랩〉, 〈건축탐구 집〉, 다큐프라임 〈서울은 사랑할 것이 많다〉, 〈가족쇼크〉 등을 연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송대상 작품상, 한국방송대상 작품상, 한국 PD대상 실험정신상 등을 수상했다. 현재 EBS 교육제작부 부장이다.



형건 Gunny Hyung

현 EIDF 사무국장 / 한국

미국 Wayne State University에서 미디어커뮤니케이션, Post BA와 동 대학원 영화 미디어(MA)를 전공하였으며 EIDF 초대 프로그래머와 사무국장(2004~2008)을 역임했다. 시카고다큐영화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영화제, 상하이 TV 페스티벌, Sunnyside of the DOC, 광주다큐페스티벌에서 심사위원 및 패널을 역임했으며, EBS 다큐프라임-한국PD 대상(실험정신상)을 수상하였다.



존 린제이 John Lindsay

컨설턴트 프로듀서 / 미국

존 린제이는 여러 상을 수상한 TV와 멀티 플랫폼 프로덕션의 총괄 책임자다. 그는 공동 제작자이자 시니어 매니저로서 약 300시간이 넘는 국내외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으며, 약 30개의 공동 제작을 진행해왔다. 린제이는 전통적인 펀드에서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투자 유치 전략을 개발하였으며 예산 개발과 프로듀싱의 전문가이다. 그가 제작한 프로젝트들은 Japan Prize상, Peabody상, 컬럼비아-듀폰트상, 선댄스 영화제 관객상, 에미상 등 60여 개의 국내외 상을 받았다.

EIDF2020 인더스트리 멘토 소개(아카데미)

<글로벌 피칭 아카데미-국내>



감병석 Gary Byung-seok Kam

프로듀서 / 한국

미국 영화예술아카데미의 회원이며 한국 다큐 역사상 최초로 아카데미 수상후보에 올랐던 〈부재의 기억〉(2018)을 비롯해, 아시아 다큐 중 암스테르담 국제다큐영화제에서 최초로 대상을 수상한 〈달팽이의 별〉(2011),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공식영화 〈크로싱 비욘드〉 등을 제작한 아시아의 대표적인 프로듀서 중 한 사람이다. 현재 한국, 필리핀, 네덜란드 등지에서 다큐를 제작하며 다양한 아시아 국가의 다큐멘터리 워크숍에서 튜터로도 활동 중이다.



김선아 Kim Sunah

프로듀서 / 한국

한국에서 신문방송학을 공부하고, 미국 대학원에서 영화를 전공했다. 2006년에 뉴욕에 정착한 후, 독립극 영화 프로듀서 및 한국방송의 현지코디네이터로 활동을 시작했다. 그녀가 프로듀싱한 단편영화는 칸느국제영화제에, 장편 영화는 전주국제영화제에 초대되었고, 미국 코디네이터로 참여한 60여 편의 프로그램은 KBS, SBS, MBC, EBS 등 각종 지상파 채널에서 방영되었다. 또한, 미국 케이블채널에서 방영된 TV 프로그램 시리즈를 제작, 연출하기도 했다. 2014년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한국에 돌아온 후, IDFA, Hot Docs, Crossing Borders 등의 피칭 포럼 및 워크숍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한국에서 첫 작업한 장편다큐는 IDFA를 비롯한 세계유수영화제에 초청되었고,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세계공영방송에 판매되었다. 현재, 국제공동제작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젝트들을 프로듀싱하고 있다.



오희정 Oh Heejung

프로듀서 / 한국

〈위로공단〉, 〈위켄즈〉, 〈버블패밀리〉 등의 해외배급을 전담했다. 〈피의 연대기〉를 시작으로 다큐멘터리 제작을 시작했으며, 〈더 플랜〉, 〈그날, 바다〉에 프로듀서로 참여했다. 유럽과의 탄탄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현재 국제공동제작 분야에 전문성을 쌓아가고 있다. 픽션과 논픽션의 경계에서 전세계 관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영화를 제작하고 있다.

〈글로벌 피칭 아카데미-국내〉



조소나 Jo Sona

프로듀서 / 한국

다큐멘터리 프로듀서로 활동 중이다. 연세대학교에서 사회학, 교육학을 전공하였고 한국-벨기에 공동제작 다큐멘터리의 프로덕션 매니저로 처음 다큐 작업을 시작했다. 이후 다양한 다큐멘터리 작업에 프로듀서로 참여했다. 전쟁, 이데올로기, 트라우마, 여성을 다룬 작업들에 관심이 많다. 현재 한국과 아시아지역의 다양한 감독들과 협업하고 있다.



최우영 Choi Wooyoung

감독, 프로듀서 / 한국

2002년부터 18년간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오고 있는 최우영 감독은 2013년 국제공동제작 다큐멘터리 〈내일도 꼭, 영클조〉를 통해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로 데뷔하였고, 이 작품은 중국 골드판다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장편 다큐멘터리상'을, 브라질의 탈라스-상파울로 TV 페스티벌에서 '장편 다큐멘터리상'과 '감독상'을 수상하였다. 2015년 벨기에 감독과 함께 제작한 다큐멘터리 〈공부의 나라〉는 전 세계 20여 개국에서 영화제 상영 및 방영되었다. 최우영 감독의 관심은 자연, 야생동물, 환경으로 이어져 〈부에노스아이레스 동물원의 마지막 여름〉, 〈나는 전설이다〉, 〈정글스쿨〉 등을 제작해오고 있다.

<글로벌 피칭 아카데미-해외>



브리짓 오셰어 Brigid O'Shea

DOK Leipzig 인더스트리 총괄 책임자 / 독일

브리짓 오셰어는 호주 출신으로 멜버른과 베를린에서 미술 학위를 마친 후 베를린 국제 영화제의 네트워킹 플랫폼인 베를린 탈렌트를 비롯하여 공동제작 마켓에서 10년 넘게 일해왔으며, 지난 5년간은 DOK Leipzig Co-Production 미팅 등 DOK 인더스트리 행사를 주관해왔다. 오셰어는 프라하의 다큐멘터리 캠퍼스 등 다큐멘터리 영화 교육 기관에서 다큐멘터리 교육 과정을 이끌어 왔으며, 독일 뿐 아니라 북미와 발칸반도에서도 신진 제작자를 대상으로 유럽의 공동 제작과 파이낸싱에 대한 워크숍을 하고 있다. 2015년부터 그녀는 DOK 인더스트리의 총괄 책임자를 맡고 있다.



이마무라 켄이치 Kenichi Imamura

NHK 엔터프라이즈 글로벌 프로그램 총괄 프로듀서 / 일본

1983년 NHK에 입사하였으며 현재까지 다수의 뉴스 프로그램들과 다큐멘터리들을 제작해왔다. 2005년에서 2009년까지 NHK의 배급망인 MICO의 마케팅 디렉터로 활동하였으며, 이후 NHK의 인기 프로그램 월드 다큐멘터리의 커미셔닝 에디터를 역임하였다. 2012년 NHK 엔터프라이즈에 입사하여 새로운 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전 세계 다큐멘터리 영화제에 적극적으로 참석해오고 있다. 또한 2011년 Tokyo Docs의 설립 이래 어드바이저로 활동하고 있다.

EIDF2020 인더스트리 멘토 소개(아카데미)

<글로벌 피칭 아카데미-해외>



달시 파켓 Darcy Paquet

작가, 평론가 / 미국, 한국

웹사이트 Koreanfil.org의 개설자이자, New Korean Cinema: Breaking the Waves(2010)의 저술가인 그는 Variety와 Screen International의 특파원으로 일했으며, 최근에는 부산 아시아영화학교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다. 우디네 극동 영화제의 프로그램 컨설턴트이기도 한 그는, 2013년 한국 독립 저예산 영화의 성취를 기념하기 위한 '들꽃영화상'을 공동 창립했다. <기생충>, <아가씨>, <밤의 해변에서 혼자> 등의 영어 자막을 번역해왔다. 1997년부터 서울에 살고 있다.



네일 P. 조지 Neil P. George

영화 감독, 교수 / 영국

영국 출신 영화 감독이자 동아방송예술대학(DIMA) 영화과 교수이다. 그는 2011년부터 한국에 살면서 한국 사회와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대학에서 영화 프로덕션을 가르치고 있다. 그는 여러 상을 수상한 탈북자에 대한 장편 다큐 <While they watched>(2015)와 손기정 선수에 대한 다큐멘터리 <Beyond the Picture; The story of Sohn Kee Chung>을 공동연출하였다. 그가 제작한 영화에는 <After the Sewol>(2016), <Crossroads>(2016), <Our Journey>(2018) 등이 있다.

EIDF2020 인더스트리 해외 편집 감독 소개(아카데미)

〈퍼스트컷〉



알렉스 버셰 Alex Bushe

편집자 / 미국

알렉스 버셰는 다큐멘터리 및 내러티브 영화 제작에 많은 경험을 가진 영화 편집자이다. 현재 현대 무용 안무가 Bella Lewitzky의 삶과 작품에 관한 다큐멘터리 〈Bella Citizen Artist〉와, 중국 광저우에서 살고 있는 아프리카 혼혈 중국인 소녀를 10년간 촬영한 다큐멘터리를 편집하고 있다. 알렉스는 편집자 Joe Bini와 함께 8년 동안 일했으며 Lynne Ramsay, Andrea Arnold, Nick Broomfield 및 Werner Herzog와 함께 6편의 영화를 포함한 다양한 감독을 역임했다. 2014년에는 Sundance Institute의 다큐멘터리 편집 및 스토리 랩에 참여했으며 Doha Film Institute에서 2개의 워크숍을 진행했다.



클라우디오 휴즈 Claudio Hughes

편집자 / 프랑스

클라우디오는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영국 및 네덜란드, 우루과이와 브라질을 거쳐, 프랑스에 정착한 뒤 25년 동안 편집 및 컨설팅을 해왔다. 영어, 불어, 스페인어 및 포르투갈어를 구사하며 〈IDFA summer school〉 카이로 영화제, DOK 인큐베이터, 독스인천 코리아, Docs by the Sea Indonesia 및 Berlin Talent Campus에서 튜터로 활동했으며 칸느, 로카르노, 선댄스에서 선발되었다. 토론토, 베를린 및 IDFA, 두 편의 개봉 영화 : 2015 년 가족 사건 (The Family Affair) (2015)과 Stranded(2008)로 최우수 다큐멘터리로 Joris Ivens 상을 수상했다.



제스퍼 오스먼드 Jesper Osmund

다큐멘터리 편집자 / 덴마크

제스퍼 오스먼드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편집자이자 내러티브 컨설턴트다. 코펜하겐과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본사를 두고, 글로벌한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극영화 편집에서 경력을 시작하여 여러 장편과 단편 영화를 편집했고, 첫 번째 다큐멘터리 편집 후 점점 더 논픽션에 빠져 들었다. 현재 그는 전적으로 논픽션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100편이 넘는 다큐멘터리를 편집했다. 이들 중 다수는 IDFA, Sundance, Berlinale 및 HotDocs에 의해 선정되었고, 국제 에미상을 포함하여 수많은 상을 수상했다. 제스퍼는 또한 내러티브 컨설턴트/스토리 편집자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IDFAcademy의 fx에 대한 러프컷 및 피칭 워크숍에서 정기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다.

〈퍼스트컷〉



파트리크 밍크스 Patrick Minks

편집자, 작가, 감독 / 네덜란드

파트리크 밍크스는 암스테르담 대학에서 드라마와 영화를 전공한 후 네덜란드 영화 아카데미로 전환하여 1992년 영화 편집자로 졸업했다. 1990년대 네덜란드 영화 잡지 Skrien의 비평가로 영화 편집에 전념했다. 그리고 작가, 감독, 편집자로서 그는 Heddy Honigmann, Jos de Putter, John Appel, Eugenie Jansen, Hany Abu-Assad, Walter Stokman 및 Masha Novikova와 같은 유명한 감독들과 함께 작업했다. 최근에는 Liew Seng Tat, Thom Vander Beken 및 Jeroen van Velzen의 영화를 편집했다. 2009년부터 네덜란드 영화 아카데미에서 영화 편집자이자 작가 / 감독인 파트리크는 네덜란드 영화 아카데미에서 마스터 영화 프로그램에 참여해 왔으며, 정기적으로 영화 제작자와 시각 예술가들과 함께 대본과 거친 장면에 대해 상담하고 코치하고 있다.



스텔라 판 보르스트 Stella van Voorst

편집자 / 네덜란드

스텔라 판 보르스트는 암스테르담에 거주하는 다큐멘터리 감독 겸 편집자다. 그녀는 여러 장편의 다큐멘터리, 단편 및 예술 작품을 제작했다. 지난 5년 간은 네덜란드 감독 조합의 이사로 일했다. NPO(네덜란드 방송사)의 고문인 그녀는 다큐멘터리 기획안을 읽는 것에 많은 경험이 있다. 지난 15년 동안 그녀는 다양한 수준에서 영화를 가르치고 있으며, 지난 5년 동안은 주로 예술 학교의 학사와 석사 학생들을 가르치고 코칭했다.